

패션산업에서의 윤리적 패션

-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

유 홍 식

동양대학교 패션경영학과 부교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윤리적 패션의 기초연구로 지속가능한 패션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사례연구로써 국내외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의 선행 연구와 국내외 인터넷과 신문, 잡지와 같은 보도 자료 등의 자료들을 수집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스트(fast) 패션이 강세를 이루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자원 활용에 대한 노력과 지속가능한 환경실천에 대한 관심증대가 지속가능한 패션의 출현을 야기 시켰다. 둘째, 지속가능한 패션제품들은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생산, 폐기 후 재사용에 이르기까지 생태계를 보호하고 다음세대를 위해 자연 순환과정에 순응하는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셋째, 지속가능한 패션은 디자인기획의 초기단계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지속가능한 패션은 제품의 생명주기를 연장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재활용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재활용 패션디자인은 그린디자인이나 환경 친화적 제품의 시스템에서 보여주는 재사용, 재생 등의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섯째, 오래되거나 낡은 소재의 재사용은 패션의류와 패션잡화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연구 되어졌다. 여섯째, 다른 형태의 소재로 만들어 사용하는 재생은 아웃도어, 스포츠 웨어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연구 되어졌다.

주제어: 지속가능한, 재활용 패션, 재생, 재사용

I. 서론

경영학자 Carrol(1999)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이윤 창출, 법률 준수,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자본주의 시장 논리 하에서의 이윤 창출은 기업의 제1 목표이며 최대목표이다. 특히 패션산업에서는 기계론적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조장하면서 대량폐기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기계론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가시화 되면서 지금까지 기업이 추구해온 이윤극대화 만으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음을 인지한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으로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성의 조화를 새로운 기업경영의 목표로 삼는 환경적 패러다임을 가시화 시키고 있다.²⁾ 이에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밀접하게 연계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등 기업의 윤리성과 함께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대두 되었다.

최근 국내의 패션산업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의견과 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관으로서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³⁾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디자인 연구는 주변영역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패션산업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는 환경과 관련된 오가닉(organic) 소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사용과 재활용, 재생 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 사회적, 윤리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개념과 지속가능한 패션이 어떻게 실용화 되고 있는

지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속가능한 패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자료 원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패션의 일반적인 개념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의 출현배경을 살펴보고 200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사례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사례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SDA (sustainable solution design association, 2002)⁴⁾에서 제시하고 있는 guide lines과 2010년 『The Independent』지 선정 윤리적 패션아이템⁵⁾, 에코디자인(eco-design handbook)⁶⁾, www.treehugger.com, www.orgdot.co.kr과 패션관련 잡지, 신문, 인터넷 등에서 거론된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고 있는 패션기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먼저 밝힌다. 이 같은 분석은 지속가능한 패션과 관련한 패션산업의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이해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패션산업의 윤리적 실천 및 윤리적 소비에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II. 지속가능한 패션

1. 윤리적 패션의 개념

오늘날의 많은 소비자들은 그들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 윤리적,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패션산업에서도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새로운 트렌드 윤리적 패션이 나타나게 되었다.

기업 윤리는 마켓활동에 대한 필수적인 규정이다. 이 규정은 한 문화 안에서 사회적으로 옳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준을 가리킨다. 또한 개인 윤리는 개인으로서 일상의 삶을 사는 데 지침이 되는 행동코드이다. 이 보편적인 기준 또는 가치는 정직, 믿음,

공평, 존중, 타인에 대한 관심, 청렴, 성실,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포함한다.)⁷⁾ 그러한 의미에서 윤리적 패션은 제작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비용의 사회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패션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⁸⁾ 정의된다.

2. 지속가능한 패션의 개념

환경보호가 패션계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되면서 단순히 오가닉 소재를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패션산업 전반이 지속가능성을 패션에 녹여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①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 안에서 자연적 생산물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②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거나 지속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⁹⁾ 더불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환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인간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 개념으로 지속가능이란 용어는 1972년 스위스에서 열렸던 인간환경에 대한 유엔 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환경문제와 경제발전을 논하면서 시작되었다.¹⁰⁾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는 1972년 로마클럽(Club of Rome)의 경제학자 및 기업인들이 경제성장이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미래예측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成長—限界, The Limits to Growth)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1987년의 브룬트란트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의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정의 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¹¹⁾ 지속가능성이란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또한 좁게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이지만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가 밝힌 지속가능발전의 개념¹²⁾은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아젠다 21(Agenda 21: 21세기 지구 환경 보존 강령)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범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디자인분야에서도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디자인업계 인식은 패션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섬유업체들은 새로운 공정과정을 개발해 환경문제에 앞선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섬유의 재활용 문제, 재활용된 섬유의 사용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늘날 환경에 대한 보호의식은 삶의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측면 이외에 건강과 환경의 보호라는 윤리적 가치를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됨으로써 패션업계에서는 친환경 소비와 지속가능한 생산의 실현을 위해 책임감 있는 공급과 소비, 양측면의 조화가 요구된다.¹³⁾

현대패션에서 지속가능한 패션의 대표적인 재활용(recycle)은 어떤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 만들거나 에너지 제품으로 환원시키는 재생(reclamation)과 형태를 바꾸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reuse)을 포함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업환경보호주의를 주장하는 파타고니아(Patagonia)사, 듀폰(DuPont)사, 리바이스(Levi Strauss) 같은 의류회사들이다.¹⁴⁾

3. 지속가능한 패션의 출현 배경

최근의 소비는 사회적, 환경적 불안정 경향으로 인해 가치 지향적 라이프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환경적 불안정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고려와 함께 윤리적인 제품의 수명주기에도 영향을 주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상승시켰다. Martin Charter and Ursula Tischner(2001)¹⁵⁾는 그들의 저서 「Sustainable Solutions」에서 지속가능한 제품개발과 서비스를 논하면서 에코보다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제품은 에코성향의 제품보다 더 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측면을 통합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제품개발과 디자인은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에 있어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균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재활용과 재생의 순환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는 패션디자인을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이라 정의하면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출현배경을 다음의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자원 활용에 대한 노력
자원의 지속가능성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구 천연자원의 유한성이라 할 수 있다. 기업 활동이 근본적으로 천연자원의 사용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원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의 대안이 많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천연자원을 경제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의 전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원의 유한

성 극복을 위해 자원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고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Re 운동을 전개하여 수리 후 사용(repair), 조건변경 후 사용(reconditioning),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 재가공(re-manufacturing)을 통해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노력, 폐기물의 처리, 유통 시스템 개선, 폐기물의 최적의 처리방법 강구 및 2차 오염 예방 등으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¹⁶⁾ 이러한 효율적인 자원이용에 대한 노력은 패션산업에서의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단순한 개념이라기보다는 환경자원의 보전과 자연친화적 관계들을 고려하는 확대된 자연주의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비재로 인식 되었던 패션디자인 영역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그리고 생태학적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환경과 인간을 위한 패션디자인으로¹⁷⁾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사료 된다.

2) 지속가능한 환경실천에 대한 관심 증대

오늘날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디자인의 기능은 환경오염에 기인한 세계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사고로 전개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에 치중되었던 전통적인 디자인 개념은 생태디자인(eco-design), 에콜로지디자인(ecology design),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환경 친화적 디자인(environment friendly design) 등의 유사 개념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개념으로 변화 되고 있다.¹⁸⁾

이처럼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친환경, 에코, 지속가능성, 그린은 국가의 정책 방향임과 동시에 모든 산업분야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표적인 소비재 상품군인 패션산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환경의 실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변화와 속도로 대변되는 패션산업은 지속가능성과는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특성상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패션과 지속가능한 환경의 실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현아(2005)¹⁹⁾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 연구에서 현대패션에서의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그 개념 속에 그린디자인의 경향을 포함하며 21세기에는 에코디자인의 주된 용어로 느린 이란 개념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패션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환경과 지속가능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과 환경에 대한 보호의식은 삶의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측면 이외에 건강과 환경의 보호라는 윤리적 가치를 더욱 중요시 하게 됨으로써²⁰⁾ 패션산업에서도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친환경적, 생태학적, 효율적 에너지 제품의 개인적 소비에 그치지 않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나 지속가능한 기법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며 단순히 자연환경의 보존이나 사회적, 도덕적 개념이 아닌 인간과 환경 사이의 균형적인 관계와 조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개념으로 인식되어²¹⁾ 자원고갈, 리사이클, 산업폐기물 감소 등의 여러 가지 대책과 더불어 지구에 친근한, 사람에 친근한 상품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패션상품에 대한 소비의식이 증가 하면서 미래패션의 중요한 개념으로 지속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다. 2009년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렸던『패션의 윤리학-착하게 입자(Fashion Ethics “Wear Good”)』라는 전시회에서 디자이너 게리 하비(Gary Harvey)의 신문지 드레스 <그림 1>은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천방안으로 재활용패션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다양한 유형의 지속가능한 패션제품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림 1> 게리 하비의 신문지 드레스, 2009년
(출처: <http://www.gmoma.or.kr>)

III. 지속가능한 패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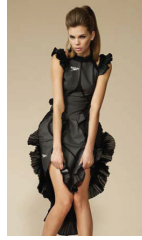
최근 들어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패션산업에도 지속가능한 패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프로세스는 디자인 기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생산, 제조, 유통, 사용 후에 다시 재생산되고 순환되는 총체적인 친환경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각각의 단계마다 환경적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들을 유추하도록 상호작용하고 순환한다.²²⁾ 본고에서의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천방안으로 대표적인 재활용은 어떤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 만들거나 에너지제품으로 환원시키는 재생과 형태를 바꾸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등 산업폐기물의 감소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리적 패션만으로 한정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은 대부분 지속가능한 소재개발과 오가닉패션+리사이클패션+윤리적 개념이 더해진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어 중복 서술도 불가피함을 밝히는 바이다.

1) 재사용(reuse)

재사용은 수명이 다해 버려지는 제품, 제품을 만들고 남은 조각 등을 특별한 가공 없이 다시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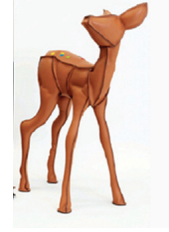
<그림 2> 오르솔라 드 캐스트로가 원단샘플과 재단 후 남은 천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의상, 2009년 (출처: <http://www.fromsomewhere.co.uk>)



<그림 3> 스피도와 프롬 썸웨어가 협업한 현 수영복 드레스, 2010년 (출처: <http://www.fromsomewhere.co.uk>)



<그림 4> 버려진 스카프로 만든 목걸이, 2010년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5> 버킨백의 조각들로 만든 새끼 사슴, 2010년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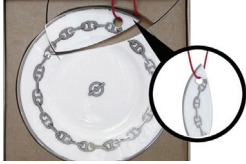
는 것을 말하며 재활용보다 그 자원순환의 효율이 매우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의류회사 사례로는 프롬 썸웨어(From Somewhere), 에르메스(Hermes), 코파 로카(Coopa-Roca), 바이 스타모(By Stamo)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런칭한 리사이클링 디자인브랜드 에코 파티 메아리(ECO PARTY MEARRY), 오르그닷(Orgdot), 리블랭크(REBLANK) 등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재사용은 패션잡화브랜드도 예외는 아니어서 브루조와 보엠편(Bourgeois Boheme), 허 디자인(Her Design), 프라이탁(Freitag), 크롭(Krop), 주카(ZUCCA), 959, 니나 돌체티(Nina Dolcetti), 터치포굿(TOUCH4GOOD)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프롬 썸웨어는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르솔라 드 캐스트로(Orsola de Castro)와 필리포 리치(Fillippo Ricci)에 의해 1997년에 설립되었다. 프롬 썸웨어는 기성복 재료로는 쓸 수 없는 원단샘플과 재단 후 남은 천 등을 이용하여 의상을 제작하고 있다. <그림 2>는 2009년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렸던 『패션의 윤리학-착하게 입자(Fashion Ethics "Wear Good")』라는 전시회에서 오르솔라 드 캐스트로가 기성복재료로는 쓸 수 없는 원단(swatch)과 남은 천들을 이용하여 제작한 윤리적 패션으로 그들은 버려지는 재료임에도 이를 새로운 의상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의 해결점을 패션산업 차원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그림 3>은 스포츠 브랜드 스피도(Speedo)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드레스로 소재는 현 수영복을 재사용하고 있으며 정교한 패턴과 과감한 커팅, 우아한 리플 등의 디테일을 사용하여 스피도 브랜드에 창의적인 수영복 디자인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이들은 『런던 패션 위크(London Fashion Week)』 주간에 윤리적 패션을 선보이는 전시 『에스테티카(Estethica)』의 공동설립자이자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영국의 윤리적 패션문화를 주도하고 있다.²³⁾

에르메스가 최근 런칭한 에르메스 뺨티 에이취(Hermes Petit h) 라인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작된 주얼리와 장식용 액세서리로 구성되어 있다. 에르메스의 장인들은 결함이 있어 판매 되지 않았거나 공장 바닥에 굴러다니던 가죽제품의 잔재에서 얻어진 조각들을 활용하여 ‘정체불명의 시적인 오브제(identified poetic objects)’라 이름 붙인 컬렉션을 만들어 냈다. 버려진 스카프는 드라마틱한 목걸이로<그림 4>, 버킨백(birkin bag)의 조각들은 실물 크기의 새끼 사슴으로<그림 5>, 깨진 접시는 유니크한 펜던트로 다시 태어났다<그림 6>.²⁴⁾

코파 로카는 로시나(Rocinha)에 있는 여성 재봉사들과 공예인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으로 브라질의 빈민가에서 마리아 테레사 레알(Maria Teresa Leal)과 5명의 여성들이 버려진 천 조각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 단체의 시초가 되었다. 코파 로카의 목적은 여성근로자들이 가사 및 육아에 방해



<그림 6> 깨진 접시로 만든
펜던트, 2010년 (출처:
<http://www.ecouterre.com>)



<그림 7> 캄파나라코스테의
한정판 시리즈로 제작한
라코스테의 폴로셔츠, 2010년
(출처: <http://www.coopa-roca.rj.gov.br>)



<그림 8> 바이 스타모의
컨퓨전 라인, 2010년
(출처: <http://www.treehugger.com>)



<그림 9> 에코 파티 메아리의
디자인 프로세스, 2011년
(출처: <http://www.meary.com>)

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허용하여
가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코파 로카는 브
라질 내 유명한 패션디자이너 및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상당한 수준의 상품들을 제조하여 주목
받고 있다. <그림 7>은 2008년 디자인 마이애미
(Design Miami)에서 올해의 디자이너로 선정된 예
스튜디오 캄파나(Estudio Campana) 그룹이 캄파나
라코스테 시리즈로 제작한 라코스테의 한정판 폴
로셔츠로 이 시리즈는 코파 로카의 뛰어난 여성장
인과 재봉사들이 라코스테 로고만을 사용하여 매
듭방식의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윤리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 코파 로카의 지속가능한 패션
이야말로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
라 윤리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지속가
능한 패션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사료 된다.

트리허그(Treehugger)에서 선정한 2010 A/W 에
스테티카에서 주목 받았던 디자이너 5명 중 한사
람인 엘리자베스 스타모(Elisabeth Stamo)에 의해
디자인이 전개되고 있는 바이 스타모는 런던에 기
반을 둔 윤리적인 여성 의류 브랜드로 기업미션은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 새로
운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찾아내는 것으로 대부분
의 원단은 오래된 창고에서 재고 형태로 남아 있
는 원단을 사용한다. 2010 A/W 런던 패션 위크의
윤리적 패션 전시 에스테티카에서는 다양한 빈티
지 재킷의 반쪽을 서로 연결하여 재미있는 테마

『Confusion Line』을 선보이기도 하였다<그림 8>25)
재활용 패션이 이처럼 전 세계 패션계의 화두로
떠오르자 국내에서도 최초의 재활용 브랜드인 예
코 파티 메아리가 문을 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
적 사회적 기업인 에코 파티 메아리는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한 재활용 디자인제품을 개발, 판매하
며 동시에 재활용 디자인제품을 매개로 환경에 대
한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지구를 지키는 캠페
인을 통한 에코라이프스타일의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 제품의 개발은 버려지는 소재의 재
활용, 제작과정과 부자재 사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그림 9>26)

리블랭크는 버려지고 낭비되는 폐자원을 업 사
이클링(up cycling)을 통하여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감성과 가치를 만들고 실천하는 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참여하는
지역 자활공동체와 협력하여 일자리를 지원함으로
써 제품 생산과정에서 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08년부터 끊임없이 환경을 위하고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리블랭크의
로고는 ‘다시’라는 접두사의 ‘re’와 무한한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는 ‘blank’의 조합으로 순환(re)의
의미가 담긴 일상의 모든 제품을 리사이클링 작
업으로 완성함을 뜻하며 독창적인 디자인작업과 함
께 발상의 전환을 실천하여 제3의 리사이클링 언
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림 10>은
가죽재킷을 해체하여 가방으로, 울 재킷을 해체하



<그림 10> 재활용된 리블랭크 상품, 2009년
(출처: <http://www.reblank.com>)



<그림 11> 커피자루를 재활용해 만든 숄더백, 2010년 (출처: <http://www.orgdotshop.net>)



<그림 12> 브루조와 보옴의 친환경 가방, 2010년
(출처: <http://orgdotshop.net>)

여 클래식한 보스턴 가방으로 재활용한 리블랭크의 상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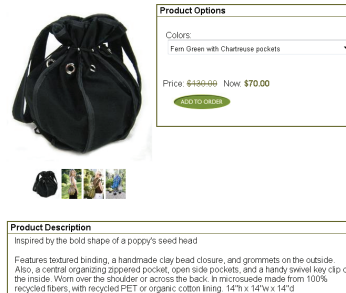
지구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윤리적 패션을 추구하는 오르그닷은 지구적 이슈인 환경문제를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풀어가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오르그닷은 단순히 친환경물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에 디자인과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담아 소재의 친환경성은 물론 여기에 디자인력을 갖춘 제품개발을 통해 윤리적인 소비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각종 커피의 원두자루를 재활용한 가방('once...burlap sack' bag)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그림 11>.

브루조와 보옴은 온라인에 기반을 둔 패션 잡화브랜드로 지속가능하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브랜드로 질 좋은 고객서비스를 소비자에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eco friendly), 행복한 근로자(happy workers), 공정무역 상품(fair trade materials), 오가닉(organic), 마(hemp), 동물보호(vegan)의 6가지 윤리적 규칙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림 12>는 동물가죽이 아닌 재활용한 식물성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지속가능한 패션의 또 다른 특성인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여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가방임을 알 수 있다.

허 디자인은 헬렌 리글(Helen Riegler)에 의해 2004에 설립된 윤리적 가방 브랜드로 소재는 친환경소재와 지속가능한 재활용소재를 사용하여 가방

을 제작하고 있다. 허 디자인은 소재 뿐 만 아니라 염색, 접착제, 프린트용액 등도 친환경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자인은 과도한 장식을 피하고 소비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모양과 자연적인 색감을 사용하며 각 제품에는 영감의 근원지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그림 13>.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코스타리카 소재 작은 공장에서 가방을 제작하면서 디자이너와 노동자 모두에게 최저임금, 4대 보험, 휴가와 보너스를 보장하고 있다. 허 디자인의 이러한 윤리적 가치관은 이전의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디자인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윤리적인 패션과 관계가 깊음을 알 수 있다.

프라이탁은 1993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가방브랜드로 버려지는 트럭 덮개와 자전거 페타이어, 안전벨트 등을 이용하여 가방을 만들고 있다. 프라이탁의 제품들은 방수가 가능한 재질의 천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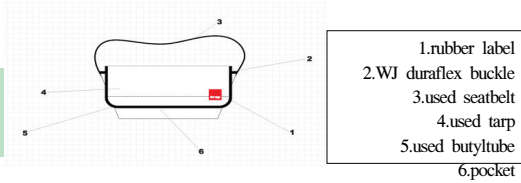
<그림 13> 제품의 인스피레이션과 재료를 설명하고 있는 허 디자인의 가방, 2010년 (출처: <http://www.her-design.com>)



<그림 14> 에코 파티 메아리의 현수막 가방, 2008년 (출처: <http://www.newswire.co.kr>)



<그림 15> 크롭의 재활용소재를 활용한 가방, 2010년 (출처: <http://www.krop.kr>)



<그림 16> 터치포켓의 재활용 소품들, 2010년 (출처: <http://news.mk.co.kr>)

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튼튼할 뿐 만 아니라 트럭 덮개의 일부만을 재단하여 사용하는 특성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국내에도 재활용을 통해 가방을 제조하는 곳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에코 파티 메아리와 높은 기능성과 유니크한 디자인, 적절한 가격대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는 크롭, 터치포켓이 그 좋은 예이다<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이들 브랜드는 길거리 현수막, 낡은 가죽소파, 자동차 안전벨트 등을 직접 수거하여 이를 세척, 재단하고 봉제하여 가방을 제작함으로써 전혀 다른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창조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다는 의미에 내가 고른 것과 똑같은 제품은 없다는 희소가치가 더해져 까다로운 패션리더들에게도 어필하고 있다.²⁷⁾ 특히 터치포켓은 ‘숨쉬 있게 좋은 물건을 만들고 좋은

가치를 담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슬로건으로 버려지는 것, 쓰임이 다한 현수막, 광고판을 활용해 생활 곳곳에서 쓰일 수 있는 용품으로 변신시키는 소셜 벤처(social venture)다. 한국에서는 소셜 벤처가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수십 년 전부터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한 해 매출액 50조, 국내 총생산액(GDP)의 1%를 차지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소셜 벤처의 진면모가 발휘되고 있다.²⁸⁾

주카의 에어백가방은 버려지는 에어백을 재활용하여 만들어 진다<그림 17>. 포켓은 소가죽으로, 어깨끈은 안전벨트를 재활용하여 제작된 이 가방의 묘미는 쓰여진 에어백이 장착되었던 차의 종류나 에어백을 장착했던 모양에 따라 가방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959의 디자이너 파올로 페라리(Paolo Ferrari)는 학창시절부터 재활용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여러 재활용디자인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안전벨트를 재활용한 가방컬렉션을 내놓게 되었다<그림 18>. 959라는 브랜드네임도 남다르다. 이는



<그림 17> 주카의 에어백 가방, 2012년 (출처: <http://judong.co.kr>)



<그림 18> 959의 안전벨트를 재활용한 가방, 2009년 (출처: <http://www.designflux.co.kr>)



<그림 19> 에스카마의 드림 탭 가방, 2005년 (출처: <http://www.treehugger.com>)



<그림 20> 킨의 신발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한 가방, 2007년 (출처: <http://www.treehugger.com>)



<그림 21> 인도 커플 태클 폐기물 관리의 비닐봉지를 재활용한 패션 가방, 2006년 (출처: <http://www.treehugger.com>)



<그림 22> 재생고무를 활용한 카스트디의 백, 2006년 (출처: <http://www.treehugger.com>)



<그림 23> 이 모아의 주스 갑을 엮어 만든 가방, 2011년 (출처: <http://www.emoi-france.fr>)



BBP-02
Bracelet recyclé en papier de magazine
Longueur 16cm, modifiable à la taille du poignet grâce à chaîne

<그림 24> 이 모아의 종이로 만든 팔찌, 2011년 (출처: <http://www.emoi-france.fr>)



<그림 25> 니나 돌체티의 업 사이클 구두, 2010년 (출처: <http://Ninadolcetti.com>)



<그림 26> 헤티 로즈의 빈티지 기모노 슈즈, 2011년 (출처: <http://www.fashioncra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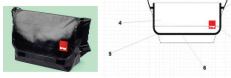
안전벨트가 처음 자동차의 표준장비로 안착했던 1959년에서 따온 것으로 959는 폐품처리장에서 수거한 안전벨트들을 엮어 백팩에서 솔더백, 핸드백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959 가방들의 재활용 비율은 최저 70%에서 최대 97%에 이를 만큼 확실한 재활용제품이다. 가방의 핵심소재가 안전벨트인 만큼 959는 먼저 벨트를 패브릭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벨트 끈 자체는 물론 버클과 같은 요소들을 디자인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다. 수거된 벨트는 세척 및 위생처리 과정을 거친 후 디자인에 맞게 잘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가방으로 재탄생 되고 있다. 959는 이 남다른 재활용 아이디어로 폐기의 운명에 처한 안전벨트에 액세서리소재라는 새로운 사용가치를 부여한 것이 눈길을 끈다.²⁹⁾ 959의 이러한 시도는 지속가능에 대한 솔루션을 찾으려는 디자이너의 노력이 담겨있는 듯하다.

이외에도 알루미늄 캔의 드롭 탭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에스카마(Escama)<그림 19>와 신발 제조업체로 신발 생산과정에서 발











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해 가방을 제작, 판매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윤리적 기업 킨(Keen)<그림 20>, 비닐봉지를 재활용하여 패션 가방을 제작하는 인도 커플 태클 폐기물 관리 (Indian Couple Tackle Waste Management)<그림 21>, 재활용 고무를 활용하여 가방을 제작하는 카스트디(KASTd)<그림 22>, 독특한 소재로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드는 브랜드 이 모아(E-MOI)의 주스 갑(juice package)을 엮어서 만든 가방<그림 23>과 종이로 만든 팔찌<그림 24> 등이 있다.

니나 돌체티의 구두는 가죽을 재활용하고 식물성으로 무두질(테닝)하여 만든 업 사이클드 가죽 (up-cycled leather)으로 만들어지며 굽은 코르크나 나무 등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고 있다<그림 25>. 리사이클드(recycled)와 업 사이클드(up-cycled)는 소비과정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리사이클드는 소비 후 재활용하는 경우이며 업 사이클드는 제작과정에서 나오는 자투리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업 사이클드와 리사이클드의 차이로 니나 돌체티의 업 사이클

<표 1> 소재의 재사용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명	지속가능한 패션사례	재활용 분류	지속가능한 패션특징
		재사용(reuse)	
프롬 섀웨어	- 기성복 재료로는 쓸 수 없는 원단 샘플 사용 - 재단 후 남은 천 등을 이용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에르메스	- 가죽 제품의 잔재에서 얻어진 조각 - 버려진 스카프 - 버킨백의 조각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 패션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코파 로카	- 버려진 천 조각 활용 - 여성근로자들이 가사 및 육아에 방해 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허용 - 환경적, 경제적, 윤리적 측면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패션		- 재활용성 - 친환경 - 수익성 - 인간경영
바이 스타모	-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 사용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에코 파티 메아리	- 버려지는 소재의 재활용 - 제작과정과 부가재 사용의 최소화 목표 - 트럭 덮개와 자전거 페타이어 등을 이용하여 가방 제작		- 재활용성 - 친환경 - 수익성 - 실험성
리블랭크	- 버려지고 낭비되는 폐자원의 업 사이클링 -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참여하는 지역 자활공동체와 협력하여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제품생산과정에서 일 나눔을 실천		- 친환경 - 수익성 - 인간경영 - 재활용성 - 실험성
오르그닷	- 각종 커피의 원두자루를 재활용한 가방 'once...burlap sack' bag을 제작하여 판매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브루조와 보엠편	- 친환경, 행복한 근로자, 공정무역 상품, 오가닉, 마, 동물보호의 6가지 윤리적 규칙 준수		- 친환경 - 수익성 - 인간경영
허 디자인	- 친환경 소재와 지속가능한 재활용 소재 사용 - 염색, 접착제, 프린트용액 등도 친환경적인 것을 사용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프라이탁	- 트럭 덮개와 자전거 페타이어, 안전벨트 등을 이용하여 가방 제작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 실험성
크롭	- 길거리 현수막, 낡은 소파가죽, 자동차 안전벨트 등을 이용하여 가방 제작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 실험성

<표 1> 계속

브랜드명	지속가능한 패션사례	재활용 분류	지속가능한 패션특징
		재사용(reuse)	
터치포켓	- 버려지는 것, 쓰임이 다한 현수막, 광고판을 활용한 재활용 소품들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 실험성
주카	- 에어백을 재활용하여 만든 에어 백 가방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 실험성
959	- 안전벨트를 재활용한 가방 컬렉션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 실험성
에스카마	- 풀 탭을 재활용한 가방 컬렉션		- 친환경 - 재활용성 - 실험성
킨	- 신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해 가방을 제작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 실험성
인도 커플 테클 폐기물 관리	- 비닐봉지를 재활용하여 패션 가방을 제작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카스트디	- 재활용 고무를 활용하여 가방을 제작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이 모아	- 주스 갑 및 종이를 활용하여 액세서리 제작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니나 돌체티	- 가죽을 재활용하고 식물성으로 태닝하여 만든 업 사이클드 가죽으로 만들어진 구두 - 굽은 코르크나 나무 등 환경 친화적인 재료 사용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헤티 로즈	- 일본 기모노 원단을 주재료로 사용 - 굽은 대부분 나무를 이용 - 그 이외의 장식에는 재활용된 빈티지 장식들을 활용하여 제작된 핸드 메이드 신발브랜드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드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런던의 수제공방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영국의 헤티 로즈(Hetty Rose)사의 기본컬렉션은 빈티지재료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그림 26>. 원단은 일본의 기모노원단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굽은 대부분 나무를 이용하고 있다.

그 이외의 장식은 재활용된 빈티지장식들을 활용하여 핸드메이드로 제작되고 있다. 헤티 로즈사의 대표적인 기모노컬렉션은 100% 친환경으로 이루어진 제품은 아니지만 기모노소재를 중심 재료로 쓴다는 점에서 에스닉 트렌드와 환경 친화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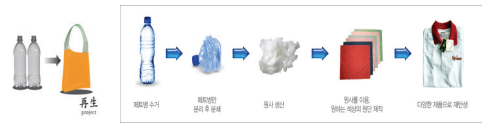
<그림 27>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재활용 유니폼, 2011년
(출처: <http://bntnews.hankyung.com>)



<그림 28> 나이키의 신발 재활용 프로그램 과정, 1983년
(출처: <http://koreafashion.org>)



<그림 29> SK 와이번스 야구단의재생 폴리에스터 그린유니폼, 2010년 (출처: <http://orgdot.co.kr>)



<그림 30> 오르그닷의 재활용 페트병, 2010년
(출처: <http://orgdot.co.kr>)

이처럼 재사용된 재료를 사용하여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컬렉션이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디자인에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들의 상관성을 고려한 디자인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2) 재생(reclamation)

재생은 어떤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 만들거나 에너지제품으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패션산업에서의 재생소재들은 환경보호는 물론 환경 친화적인 섬유로서 경제적 효과를 높여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재생패션의 대표적 사례로는 파타고니아(Patagonia), 나이키(Nike), 매트 앤 넷(MATT & NAT), 제이콥 제임스(Jacob James) 국내에서는 오르그닷 등이 있다.

패션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속가능정책을 도입한 대표적인 친환경기업은 미국의 파타고니아사이다. 파타고니아는 2000년부터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재활용하여 폴리에스터 원사를 뽑아내는 기술을 획득한 일본 파트너인 테이진(Tejjin)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에서 생산되는 플리스

(fleece)제품을 모두 재생원사를 사용해 만들고 있다. 또한 파타고니아는 소비자들이 쓰고 버리는 의류를 재수거해 다시 재활용하는 CTR 프로그램(평상복 재생 프로그램: common threads garment recycling)과정을 통해 수집된 낡고 오래된 제품들은 에코서클(ecocircle)프로그램에 의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기름에서 추출하는 폴리에스터 원사에 비해 무려 75%나 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⁰⁾ 이처럼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은 인간과 환경사이의 관계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고려하며 인류의 현재대와 미래를 위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환경보존과 유지를 위한 진보된 개념의 에코디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³¹⁾ 또한 파타고니아는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구의 공기, 물, 토지를 보존하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디자인개발, 환경 친화적인 의류제작에 회사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혁신적인 재활용공정을 통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재활용하여 파타고니아 만의 독특한 신칠라 플리스(synchilla fleece)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원단을 생산해 냈다. 파타고니아의 PCR(post consumer recycled)과 같은 재생프로그램은 사용된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폐기 처리된 의류조각을 바이오(bio)처리로 재생된 섬유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이것은 원래 자원의 성격을 바꾸어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도록 하는 재활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제품의 디자인과정과 완성 뿐 아니라 사용 후 폐기과정에서 다시 재생되고 재활용되어 완전히 새로운 용도의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디자인되는 이러한 과정들은 이전의 에코디자인이 외형적 변형에 의한 소재의 재활용에 그치는 성과에 비하면 보다 확대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³²⁾ 이처럼 패션에 스며든 지속가능한 환경실천에 대한 관심증대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나이키 또한 지속가능한 소재(sustainable materials) 사용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여 상품을 만들고 있다. <그림 27>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가 2011~2012 시즌부터 홈경기에서 착용할 새 유니폼으로 나이키의 혁신적인 재활용 폴리에스터 기술로 만들어졌다. 각각의 유니폼은 최대 13개의 플라스틱 물병을 재활용해 만들어지며 이 새로운 생산과정은 전통적인 폴리에스터 생산 방식에 비해 에너지소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운동복보다 13%나 가벼운 초 경량성을 실현한 나이키 드라이-핏(dry-fit) 기술을 이용하여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체온을 조절하여 항상 시원하고 땀이 차지 않게 해줌으로써 선수들의 몸에 땀이 차지 않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³³⁾ 1983년에 시작된 나이키의 신발 재활용(reuse-a-shoe) 프로그램은 버려진 운동화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쓰레기를 회수하여 새로운 재생물질(nike grind)에 투입, 운동 경기장 바닥과 러닝트랙, 농구코트 등의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다<그림 28>.

이처럼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또 다른 특성은 기존 에코디자인에서 보여 지는 재생과 재활용의 방법이 주요원리로 작용하나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보다 다양한 스타일과 제품개발의 가능성

을 증가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전문 스포츠브랜드인 파타고니아와 나이키의 경우도 지속가능한 제품개발에 관한 환경정책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활용과 재생에 의한 디자인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좋은 예로 사료 된다.

나이키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도 2010년 프로 야구 올스타전에서 SK 와이번스(SK wyverns) 야구단 선수들은 버려진 페트병을 재생한 섬유로 만든 그린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그림 29>. 효성에서 개발하여 국제인증 받은 재생폴리에스터 원단(regen)을 사용하여 만든 SK 와이번스 야구단의 유니폼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없었던 스포츠와 윤리적 패션의 행복한 만남이다.³⁴⁾

오르그닷의 지구의 부담을 줄이는 재생프로젝트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를 생산하여 재생폴리에스터 옷감과 재생폴리에스터로 만든 친환경 디자인 가방('once·plastic bottle' bag)를 탄생 시켰다. 50g짜리 페트병 4개는 옷 한 벌로 재탄생하며 이때 배출되는 CO₂의 배출량은 일반적인 제조과정에 비해 약 30%가량 줄어들어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페트병의 매립 및 연소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방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0>.

세련된 디자인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윤리적 가방브랜드 매트 앤 넷은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여 가방을 제작하며 상품마다 몇 개의 병을 재활용하여 만들었는지 표시하고 있다<그림 31>.

제이콥 제임스는 윤리적 모자브랜드로 컬렉션은 스팅플러스(stingplus), 빈티지 리메이드(vintage remade), 레어 브리드(rare breed), 에코 피(eco-fi) 등 크게 네 가지 소재로 나누어진다. 스팅플러스는 잉글랜드 중동부에 위치한 링컨셔(Lincolnshire)에서 살충제 없이 길러진 환경 친화적인 원단인 쉘기풀과 양모를 섞어 제작한 원단으로 제작되며, 빈티지 리메이드는 사랑스럽고 오래된 빈티지원단



ABYSS
£150 GBP
 SHELL: PULVER-HANDWERK WITH TONE ON TONE STITCHING. BUCKLE FAUX GUSSET.
 LINING IS MADE OUT OF 21 RECYCLED BOTTLES. THE ABYSS IS MADE BY EXTENSIVE
 PLASTIC WASTE AND OF COURSE, THE BOTTLES ARE MADE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MADE IN ITALY
 COLORS: **SHAM**
 ADD TO CART
 PRINT / SHARE / TWEET THIS

<그림 31> 매트 앤 넷의 21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한 핸드백, 2011년 (출처: <http://www.mattandna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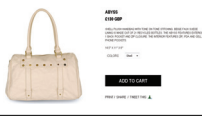

<그림 32> 에코 피스재로 제작된 제이콥 제임스 모자, 2011년 (출처: <http://www.jacob-james.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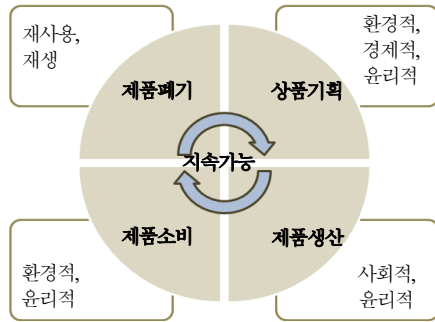
을 이용하여, 레이 브리드는 영국 데본(Devon)에서 유기농법으로 기른 맨크스 러프탄(Manx Loaghtan: Manx Loaghtan sheep)의 털을 염색하지 않고 사용하며 웨일즈(Wales)에서 직조한 원단으로 만들어진다. 에코 피는 다 쓴 페트병을 깨끗이 세척한 후 잘게 잘라 녹여 칩으로 만든 다음 실로 뽑아 제작한 재생폴리에스터 펠트를 이용하여 모자를 만들고 있다. <그림 32>는 클래식한 커팅의 케츠비

(gatsby) 스타일의 모자로 8개의 플라스틱 병이 사용되었으며 안감은 공정무역으로 재배된 오가닉 면을 사용하고 있다.³⁵⁾ 이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상의 사례 분석 결과 패션산업에서의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은 상품기획, 제품생산, 제품소비, 제품폐기의 4단계로 구분되어짐을 알 수 있다<그림 33>.

<표 2> 재생소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명	지속가능한 패션사례	재활용 분류	지속가능한 패션특징
		재생(reclamation)	
파타고니아	- PCR 재생프로그램으로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폐기 처리된 의류조각을 Bio 처리하여 만든 재생섬유 사용 - CTR 프로그램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 실험성
나이키	- 플라스틱 병, 폴리에스터 의류 제품 및 폐기물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여 상품 제작 - 신발 재생 프로그램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 실험성
오르그닷	- 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폴리에스터 옷감과 재생 폴리에스터로 만든 친환경 디자인가방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매트 앤 넷	-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서 가방을 제작 - 상품마다 몇 개의 병을 재활용하여 만들었는지 표시하고 있음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제이콥 제임스	- 컬렉션은 스타มป์러스, 빈티지 리메이드, 레이 브리드, 에코 피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짐 - 이중 에코 피는 페트병을 깨끗이 세척한 후 잘게 잘라 녹여 칩으로 만든 다음 실로 뽑아 제작한 재생 폴리에스터 펠트를 이용하여 모자를 만들		- 친환경 - 수익성 - 재활용성



<그림 33> 패션산업에서의 지속가능한 패러다임

디자인의 초기 단계는 상품기획으로 디자이너의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디자이너의 도덕적이고 사회적 책임 의식은 순환적 방식의 친환경 실천을 위한 환경적 측면과 불필요한 디자인과 장식을 최대한 배제한 경제적인 디자인,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등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생태학적 상품의 기획으로 확장되어 지속가능한 생태학적 환경 실천의 첫 걸음이 되고 있다.

제품생산단계에서는 친환경 재료와 재사용과 재활용이 용이한 재료선택,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공정, 재사용과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 유통에 이르기까지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유익한 사회적, 윤리적 사고로의 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제품 생산 프로세스가 요구되어진다.

제품소비단계에서는 의식 있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바른 소비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과잉소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대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윤리적 소비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제품소비단계에서의 지속가능은 생산과 유통, 소비와 사용 후 후처리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며 이 단계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

제품폐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과 재활용이다. 오늘날 디자인의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는 에너지 및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면서 지구환경 및 생태계는 큰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도덕적, 사회적 책임론이 불거지게 되어 지속가능한 패션산업에서의 재생과 재활용은 이러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패션은 최근 들어서는 보다 다양한 디자인의 실현이 가능해져 리사이클드 차원에서 업 사이클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며 지속가능한 패션은 트렌드가 아닌 지속 되어야 만하는 미래패션으로 사료된다. 또한 트렌드가 지나면 버려지는 소모성의 류가 아니라 환경보전측면에서도 보다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IV. 결론

21세기에 들어 환경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 강화 되면서 재활용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 되었다.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한 패션이란 환경 파괴적 자원의 흐름을 지양하고 자원의 순환 구조를 복원시켜 나가는 패션제품을 지속가능한 패션이라 정의하면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기초연구로 지속가능한 패션의 출현 배경과 지속가능한 패션사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이나 품질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 과정의 윤리까지 챙기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상품과 기업 윤리, 사회 환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이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 결과 패스트 패션이 강세를 이루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자원 활용에 대한 노력과 지속가능한 환경실천에 대한 관심 증대가 지속가능한 패션의 출현을 야기 시켰으며 지속가능한 패션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가치관의 문제로 자리 잡고 확산되어야하는 패션트렌

드가 되었다. 따라서 패션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실천하는 방안을 찾아 가는 과정도 고민해야 할 문제로 대두 되었다

둘째, 지속가능한 패션제품들은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생산, 폐기 후 재사용에 이르기까지 생태계를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 순환과정에 순응하는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인간과 환경 그리고 사회에 관련한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이 미래지향적 가치관으로 중요시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패션은 디자인기획의 초기단계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소재의 사용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와 물의 사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보호의 합리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패션은 제품의 생명주기를 연장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재활용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재활용패션디자인은 그린디자인이나 환경친화적 제품의 시스템에서 보여주는 재사용, 재생 등의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섯째, 오래되거나 낡은 소재의 재사용은 패션의류와 패션잡화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연구 되어졌다.

여섯째, 다른 형태의 소재로 만들어 사용하는 재생은 아웃도어, 스포츠 웨어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연구 되어졌다. 일반적으로 기능성 스포츠 웨어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섬유의 경우 일반 폴리에스터와 재활용 폴리에스터 소재의 외형 및 기능이 동일하므로 광범위한 제품기획에 재생소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아웃도어와 스포츠 웨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매조건인 흡습속건, 냉/열감 기능, 자외선차단 등 제품의 특수한 기능성이며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욕구 및 가격저항은 타 복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복종 특성을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사료된다.

이처럼 친환경 프로젝트는 새롭게 변화되어 리사이클링(재생, 재활용)의 개념으로까지 전개되어 지구자원의 절약측면에서 폐 섬유 및 기타 폐자원을 섬유제품으로 가공하여 재활용 섬유소재로 만든 디자인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윤리적 패션의 하나로 재탄생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의 영역 내에서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그리고 생태학적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개념의 환경과 인간을 위한 디자인 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이러한 재사용과 재생에 사용된 소재들은 환경적 일 뿐 아니라 경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지구와 사람을 생각하는 윤리적 개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에는 더욱 더 각광 받을 것으로 사료 된다.

참고문헌

- 1) Carrol, B. A. (1999). Corporation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and Society*, 38(2), pp.268-295.
- 2) 이병욱 (1997). 환경 경영론, 서울: 비봉출판사, p.86.
- 3) 김주현, 이재정 (2006). 지속가능한의 개념과 원리, *한국기초조형학회*, 7(3), p.227.
- 4) Sustainable Solution Design Association (2002). *Guide Lines: A handbook on the environment for the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pp.1-96.
- 5) The Independent(검색어: sustainable fashion), 자료검색일 2012. 1. 20. <http://www.independent.co.uk>
- 6) Fuad-Luke, A. (2010). *EcoDesign: The Sourcebook*,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pp.1-352.
- 7) Michael R. S. Nansy, J. R. (2004). *Consumer Behavior in Fashion*, 이승희, 김미숙, 황진숙 옮김 (2007), 패션과 소비자 행동, 서울: 시그마프레스, p.612.
- 8) 김진화 (2010). 날개가 되는 옷, 머니투데이, 2010. 6. 2, p.8.
- 9) 김주현, 이재정. 앞의 책, p.227.
- 10) 이정진 (1995).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서울: 전영사, p.13.
- 11) Godfrey, B., Bob, E. and Janet, R. (2003). *Energy Systems and Sustaina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p.6.
- 12) Patricia, A. (1993). *Food for the Future: Conditions and*

- Contradictions of Sustainabil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p.344.
- 13) 장경남 (2008). 친환경 패션에 대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태도: 질적 방법을 이용한 탐색적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8(1), p.32.
 - 14) Soyeon, S. (1995). Environmentalism and Consumer's Clothing Disposal Patterns: An Exploratory Study, Clothing Textiles Research Journal, 13(1), p.38.
 - 15) Martin, C. and Ursula, T. (2001). Sustainable Solutions-Developing Products and Services for the Future-, Nevada: Greenleaf Pubns, p.121.
 - 16) 이병욱. 앞의 책, pp.150-151.
 - 17) 김주현, 이재정. 앞의 책, p.232.
 - 18) 류근중, 허은옥 (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친환경 디자인의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6(1), p.38.
 - 19) 이현아 (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109.
 - 20) Samsung Fashion Institute (2004). Samsung Fashion Trend 2004 Spring/Summer, p.21.
 - 21) 박은경 (2008). 로하스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8(3), p.26.
 - 22) 김주현, 이재정. 앞의 책, p.235.
 - 23) fromsomewhere(검색어: estethica), 자료검색일 2012. 3. 20. <http://www.fromsomewhere.co.uk>
 - 24) 삼성디자인넷(검색어: 지속가능성), 자료검색일 2012. 2. 20. <http://www.samsungdesign.net>
 - 25) Treehugger(검색어: estethica), 자료검색일 2011. 12. 25. <http://www.stamo.co.uk>
 - 26) 에코 파티 메아리(검색어: estethica), 자료검색일 2012. 3. 21. <http://www.mearry.com>
 - 27) 김서나 (2008. 11. 4). 트렌드의 새로운 갈림길, 윤리적 패션, 자료검색일 2011. 6. 8. <http://www.vivatrend.com>
 - 28) 매일경제(검색어: 윤리적 패션), 자료검색일 2011. 11. 30. <http://news.mk.co.kr>
 - 29) 디자인플럭스(검색어: 윤리적 패션), 자료검색일 2011. 8. 30. <http://www.designflux.co.kr>
 - 30) 이정민 (2009). 21세기 착한 기업의 도전과 과제, 패션정보와 기술, 6(-), p.5.
 - 31) 김주현, 이재정. 앞의 책, p.228.
 - 32) 위의 책, p.232.
 - 33) 한국경제신문(검색어: 윤리적 패션), 자료검색일 2011. 10. 11. <http://bntnews.hankyung.com>
 - 34) 오르그닷(검색어: 윤리적 패션), 자료검색일 2011. 8. 19. <http://www.orgdotshop.net>
 - 35) 오르그닷(검색어: 지속가능한 패션), 자료검색일 2011. 8. 19. <http://www.jacob-james.co.uk>
 - 36) 김주현, 이재정. 앞의 책, p.232.

Ethical Fashion in the Fashion Industry

- Focusing on the Actualization of Sustainable Fashion -

Yoo, Hong Si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Management, Dong 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basic research on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sustainable fashion and the different types of sustainable fash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ast fashion was found to be rampant, but the emergence of sustainable fashion was triggered as there were efforts for efficient and economic utilization of resources available. Another reason was that there was growing concern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Second, most sustainable fashion products at present were intended to protect the eco system in every process of design, production, disuse and reuse, and to comply with the cycle of nature for the sake of next generations to come. Third, sustainable fashion products made use of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in the initial stage of design planning. Fourth, recycled materials were used in sustainable fashion, in an effort to extend the life span of products, to prevent the unnecessary waste of resources and ultimately to minimize possible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type of recycled, sustainable fashion design included methods of reuse and recycling used in green design or environment-friendly product systems. Fifth, studies found that the reuse of old and outdated materials was widespread in fashion apparels and goods. Sixth, the study found that the recycling of materials initially produced in a different form was common in outdoor clothing and sport-wear.

Key words: sustainable, recycle fashion, reclamation, reuse